

'1할 자치' 자립도 사상 최악... 광주·전남 곳간이 '텅' 비어간다

광주, 30%대 추락... 광역시 중 최저

전남, 13.8%... 17개 시·도 중 꼴찌

지방자치 뒷걸음... 중앙 예속 심화

광주·전남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처음으로 30%대로 추락했으며, 전남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1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4개 자체체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6.8%로 지난해 40.1%보다 3.3%p 떨어졌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43.2%에서 2011년 42.0%, 2012년 41.1%로 5년 동안 6.4%p나 감소했다.

재정자립도는 자체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로, 자체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얼마나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방 정부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정책 약화와 함께 중앙 예속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대전시(43.6%)와 비교해도 6.8%p나 뒤떨어졌으며,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서도 최하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광역시 평균인 48.4%와 비교해도 초라한 수치다. 전국 특·광역시 중 예산 서율이 80.4%로 가장 높았고, 인천시 61.6%, 울산 53.3%, 부산 47.5%, 대전 43.6%, 대구 42.1%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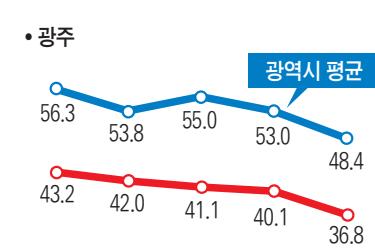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에 불과했다. 광주 서구가 20.6%로 가장 높았고, 광산구 19.8%, 남구 18.1%, 북구 15.4% 등의 순이었으며 동구는 14.9%로 가장 낮았다.

전남도 역시 지난해 16.3%보다 2.5%p 떨어진 13.8%로 전국 17개 자체체 가운데 꼴찌였다.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른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고, 중앙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올해 전국 244개 자체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3%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로, 전년에는 51.1%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 광주·전남 재정자립도 (단위: %)



■ 2014년 광주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단위: %)



30%대로 떨어진 것은 예년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 국비 부담율이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면서도 "재정자립도 하락은 광주민의 문제가 아닌 전국 자체체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국 244개 자체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3%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로, 전년에는 51.1%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선관위 '선거야카데미'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호남대 광산캠퍼스 상하관 강당에서 6·4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방안 ▲SNS 선거홍보 전략 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야카데미를 개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등 교육경비 제한

전남 16개 시·군 “都農격차 심화” 반발

정부, 보조금 규정 강화

전남도내 일부 시·군이 정부의 교육경비 보조금 규정 강화로 지원이 제한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세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을 개정으로 교육경비 제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38개 시·군·구에서 82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은 신안, 강진, 함평,

곡성, 구례 등 기존 11곳에서 16곳으로 5곳이 늘었다. 교육경비 지원 가능 자체체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영암·화순군 등 6개 시군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교육경비 지원액은 1000억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재정 상태가 나은 6개 시·군이 704억원, 나머지 300억원 가량은 16개 시·군이 지원했다. 주로 방

과 후 학교 운영비, 학교 환경 시설개선사업비, 우수학생 유치 장학금,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비 등이다.

하지만 정부의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 예산의 지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자체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가 교육정책의 신뢰성 저하, 지방 교육자치 의미 퇴색, 지역 현실을 무시한 타당행정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경비 지출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협력 자체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의 한 자체체단체장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도농(都農)간 교육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 분야는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도농 교육격차 해소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뜻인데, 이를 열악한 자체체에만 맡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보조금 규정을 강화해 농어촌 학생의 교육혜택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 예산을 늘리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내 22개 시장군수 협의회는 이날 강진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정부 등에 건의했다.

한편, 전남도내 22개 시장군수 협의회는 이날 강진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정부 등에 건의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
2014년 2월 21일(화)
~24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605-1114

교육경비 지원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협력 자체체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영암·화순군 등 6개 시군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교육경비 지원액은 1000억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재정 상태가 나은 6개 시·군이 704억원, 나머지 300억원 가량은 16개 시·군이 지원했다. 주로 방

과 후 학교 운영비, 학교 환경 시설개선사업비, 우수학생 유치 장학금,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비 등이다.

하지만 정부의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 예산의 지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자체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가 교육정책의 신뢰성 저하, 지방 교육자치 의미 퇴색, 지역 현실을 무시한 타당행정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공기업에 부는 개혁바람

광주·전남은 ‘무풍지대’?

전북·대구·부산·경북 등
부채비율 축소 나서

‘3년 연속 적자’ 광주 7곳
“안행부 지침없다” 뒷짐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국 자체체들이 강력 추진중인 대대적인 지방 공기업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개혁 의지’가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전국 대부분의 자체체들이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기로 한 데 이어

정치권 등에서 자체체 파산제 도입을 발표한 직후부터 대대적인 공

기업 개혁에 나서는 등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일 안전행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대구시, 부산시, 경북도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올해부터 부

채비율 축소와 유통성 관리를 강화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경영정보시스템에 게시하

는 한편 부실공기업은 경영진단을

비롯한 성과급 금지, 임금삭감, 정원감축, 사업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172조 원으로,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도 지난해 안행부에서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공기업 개혁 정책에 무관심한 모습이다. 전남도도

지난해부터 공기업 개혁을 하고 있

다면, 안행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공

기업 개혁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안행부가 발표한

2012년 지방공기업 자료를 보면,

광주시 산하 7개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9782억원, 부채비율은 27.

4%, 경영성과는 4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공기업도 2곳이나 될 정도로 재정 건전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 공기업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시다.

김법일 대구시장은 최근 시 산하 공기업들이 내놓은 경상비 절감, 부대수입 증대, 원자재값, 부채감축, 복지제도 축소 등 개혁안에 대해 퇴짜를 놓은 뒤 “정부가 고강도로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경영 대책은 극히 피동적이고, 아직 위기의식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다”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도 지난주 도 산하 10개 공기업·출연기관과 ‘경영 성과 계약’을 맺고 강도 높은 경영 개선을 주문했으며, 부산시는 산하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산하 경북도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현 301%에서 2017년까지 200%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안공항 떠나는 중국여행!!

상해/항주/황산 4일 769,000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869,000

상해/영파/신선거/설두산 4일 799,000

상해/설두산/신선거/주가각 5일 869,000

상해/곤명/석림/구향 5일 1,270,000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1,290,000

상해/계림/양삭 5일 1,140,000

터키, 그리스 일주 11일 3,490,000

출발일 4월 28일

겨울방학 가족과 함께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출발일 2/24.3/2.3/5.3/8.3/12
※불포함 사항 : 여권·개인 경비 국내수송
가족단위 환경입니다.(별장1동식 드립니다)

선착순 20명
특급 전통 료칸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출발일 2/24.3/2.3/5.3/8.3/12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무안-장가계 전세기 3/28~5/30일 [월/금 출발]

실속 장가계/천문산 4일 [금요일출발] 959,000

*불포함 사항 : 개인경비, 중국단체비자(W33,000), 유류세(W93,000/2월기준), 기사운송비

풀격 장가계/천문산 4일 [금요일출발] 1,059,000

*불포함 사항 : 개인경비, 중국단체비자(W33,000), 유류세(W93,000/2월기준), 기사운송비

<div style="background-color: #ffccbc; padding